

## 《雜寶藏經》의 本生故事 小考

卞 貴 南\*

## 〈目 次〉

I. 緒 言	1. 《雜寶藏經》의 주제사상
II. 《雜寶藏經》 譯經의 時代的 背景	2. 본생고사의 구조 및 예술기법
III. 《雜寶藏經》의 內容分析	IV. 結 論

## I. 緒 言

漢譯佛敎經典은 중국 고대 종교·철학연구의 무한한 寶庫이자 중국 고대문학 연구의 무진장한 寶庫이다. 한역불교대장경은 그 방대하면서 풍부한 이야기로 인해 ‘비유의 바다(譬喻海)’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용면에서 이야기의 종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전달을 위해 다양한 문학수법들을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역불교대장경 연구는 중국 고대문학의 연구에도 중요한 연구 분야이므로 필자는 한역불교경전과 중국 고대 우언문학의 상호 연관관계에 관한 시론적 연구작업의 일환으로 그 가운데 《雜寶藏經》과 중국문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雜寶藏經》의 편찬자는 北魏佛敎를 부흥시키고 雲崗石窟의 건설을 지휘하여 찬란한 중국 석굴문화를 개화시켰던 沙門統 曇曜(생졸미상, 대략 AD 400년을 전후하여 AD 48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생존했을 것으로

\* 대구한의대학교 중어중국학부 조교수

추정)이다. 담요가 생존했던 시기는 북방불교의 고난과 영광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北魏의 제3대 황제였던 太武帝 拓跋燾는 정복사업을 일단락 지은 뒤부터 도교에 심취하더니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廢佛令(446년)을 선포하여 그의 사망으로 폐불령이 폐지될 때까지 6년 동안 황하 이북지역에서 불교가 자취를 감추도록 하였다. 다행히 태무제를 계승한 文成帝 拓跋浚이 불교도였기 때문에 북위불교는 다시 발전할 수 있었으며, 문성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북위불교 융성의 토대를 다진 사람이 담요이다. 따라서 담요의 《잡보장경》 역경사업은 단순히 개인적 願力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역경작업으로 추측된다. 이 때문에 《잡보장경》의 내용을 보면 충효윤리의 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수많은 본생고사 중에서 특히 이러한 내용이 많이 번역된 점은 沙門統이라는 담요의 신분이 역경작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담요가 운강석굴 건설의 주역임을 상기해 볼 때, 담요는 북위불교의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듯하며, 따라서 《잡보장경》의 내용에 나타나는 대중적·통속적인 특징은 우연이 아닌 듯하다. 《잡보장경》에 수록되어 있는 121편의 본생고사는 인도고대의 민간설화가 중국고대 민간문학으로 융합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들 본생고사에서 다루어진 原型故事, 인물형상, 운문체와 산문체의 결합 등은 후대의 중국 서사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본고는 《잡보장경》의 내용과 예술적 특징들을 분석해보고, 중국 고대문학, 특히 후대 민간서사문학에 미친 영향관계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雜寶藏經》 譯經의 時代的 背景

《잡보장경》은 왜 번역되었으며, 그 내용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북위불교와 북위불교의 지도자였던 사문통 담요의 활동을 먼저 고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북위는 본래 내몽고 일대에 거주하였던

유목민족의 나라로 前秦을 세워 북방을 통일하였던 符堅이 澗水의 전쟁에서 패한 후에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북방 유목국가이다. 북위의 태조 道武帝(拓跋珪)는 後燕의 慕容垂와 패권을 다투면서 山西省과 河北省 일대를 장악하고 수도를 平城(오늘날의 大同市)으로 삼아 북위의 토대를 세웠다.(398년) 태조 탁발규는 泰山의 僧朗 趙郡의 法果 등의 고승을 신봉하여 대단히 존중하였다고 한다. 특히 法果는 천하의 승려들을 관장하는 道人統에 임명되었을 뿐 아니라 북위의 태조, 태종 두 황제의 존중을 받았다고 전한다. 이러한 태조의 두터운 예우에 대해 법과는 ‘태조는 當今如來이므로 모든 승려는 예우를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황제에게 절하는 것은 천자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북위의 태조와 태종이 승려를 가까이 한 것은 불교교리에 대해 심취하고 이해되었다기 보다 대중에 대한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북위불교는 이처럼 초기단계부터 왕실과 협력관계가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은 제3대 황제인 太武帝 拓跋燾때의 일이다. 그러나 황제 즉위 초기부터 불편한 관계는 아니었다. 즉위 직후의 태무제는 불교를 신봉하였을 뿐만 아니라 北涼에 曇摩讖이라는 서역고승이 있는 것을 알고 북량의 왕 沮渠蒙遜에게 담마참을 보내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저거몽손이 담마참의 인도를 거절하고 심지어 그를 살해하자 태무제는 大軍을 보내 북량을 공격하였으며, 439년 涼州 일대를 완전히 정벌하고 이곳의 불상과 경전 등을 주민들과 함께 수도 平城으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미루어볼 때 즉위 후 상당기간 불교에 대한 태무제의 입장은 적대적인 것이 아니었다. 涼州는 돈황석굴이 있는 지역이며 서역과 중국의 교차지역에 위치하였으므로 화려한 불교문화가 피어났던 지역이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을 태무제가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북위가 불교국가로 변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였으나 전혀 뜻밖의 사건으로 인해 태무제는 중국역사상 최초로 불교를 탄압한 군주로 기록되었다.

서기 446년, 蓋吳가 陝西省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많은 북방민

족이 이에 호응하였으므로 사실상 북방을 통일했던 태무제에게 최대의 위협이 되었다. 이에 태무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개오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長安까지 진출하였는데, 장안의 어느 사원에서 쉬던 중 그의 부하들이 우연히 사찰에 은닉되어 있던 무기를 발견하고 이를 태무제에게 보고하였다. 태무제는 승려들이 개오의 무리와 결탁한 것으로 추측하고 격노하였는데, 때마침 황제를 보좌하고 있던 측근의 공신 崔浩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가의 암적 존재인 불교를 폐지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이전부터 최호의 진언에 따라 道士 寇謙之를 신뢰하게 되고 道教徒임을 자처하던 태무제(自號는 太平眞君)는 최호의 진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북위 전역에서 불상과 불경을 파괴하고 소각하도록 하며 승려들을 환속시키거나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태자 拓跋晃은 태무제에게 폐불령을 거두도록 간언하였으나 태무제의 결심은 단호하여 바꿀 수가 없었다. 태자는 부득이 조서의 선포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고 알릴 수 있는 승려들에게는 미리 알렸기 때문에 많은 승려들이 자취를 감출 수 있었다. 이로 부터 태무제가 사망할 때(452년)까지의 6년 동안 승려들은 북중국에서 아무런 전도활동도 할 수 없었다.<sup>1)</sup>

태무제는 불교사원을 폐쇄하고 승려들을 탄압하면서 도교에 심취하여 연호를 太平眞君으로 바꾸는가 하면 이후 북위 황제의 즉위식을 도교의 제천의식에 따라 거행하는 등 급속히 도교를 국교로 만들었다. 그러나 태무제의 도교에 대한 열렬한 지지는 寇謙之의 사망을 계기로 점차 그 열기가 식게 되었다.<sup>2)</sup>

- 1) 태무제가 廢佛令을 내리게 된 전후 사건은 《魏書·釋老志》에 상세히 나타나 있으며 이밖에 金永燮의 <《魏書·釋老志》譯註>, 《中國史研究》 제 집 229-305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 2)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 이른바 ‘國史事件’이다. 최호가 태무제의 명령에 따라 북위의 역사를 편찬하고 그 내용의 일부를 石刻에 새겨 大路에 설치하였는데, 이 석각에 기록된 내용 중에 북위의 선조들이 패전하거나 멸족될 뻔했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격분한 태무제가 최호 등 漢族의 사대부들을 주살하도록 한 사건을 말한다. 劉精誠 《兩晉南北朝》(中國青年出版社 1994.) 242-247쪽.

452년, 태자였던 척발황이 먼저 사망하고 뒤이어 태무제도 사망하자, 북위 궁정은 일시 혼란에 빠지는 듯했으나 척발황의 아들이자 태무제의 손자였던 文成帝 拓跋浚이 즉위하면서 혼란은 수습되었다. 태자였던 부친 척발황이 불교신자였으므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던 문성제는 즉위 후 2개월 만에 불교를 부흥시키라는 조칙을 내린다. 《魏書·釋老志》에 의하면 각 州나 郡에 사찰을 하나씩 세우라고 하였으며, 전국의 사원을 총괄할 道人統이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初代 도인통으로 서역 승려 師賢을 임명하였다. 興光 元年, 문성제는 조서를 내려 五級으로 분류된 절에는 다섯 황제(道武帝, 明元帝, 太武帝, 敬穆帝, 文成帝)를 위한 석가모니 불상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조칙이 반포된 것을 보면 황제의 권위와 종교의 권위가 결합되어 있는 북위불교의 특색을 엿볼 수 있다.

초대 도인통으로 불교의 부흥사업을 지휘하던 사현이 460년 세상을 떠나자 일찍부터 문성제의 아버지였던 척발황 태자에게 존중을 받고 있던 曇曜가 두 번째의 도인통—담요 자신이 沙門統으로 개명—으로 임명되었다. 담요의 생애에 대해서는 《魏書·釋老志》·《開元釋教錄》·《歷代三寶記》 등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 있으나 이것마저도 정확하지 않은 듯하다. 정사라고 볼 수 있는 《위서·석로지》에는 담요가 사문통으로 임명된 후 雲崗石窟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僧祇戶·佛圖戶제도를 만들어 북위 불교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sup>

이처럼 담요는 북위불교의 발전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지만 문헌의 부족으로 인해 그의 생졸연대를 비롯해 많은 부분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鎌田武雄는 《中國佛教史》 제3권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3) 僧祇戶제도는 사문통이 관장하는 僧曹에서 사원에 소속되는 정복지의 백성들에게 연간 60斛 정도의 곡식을 공납받아 축적해 놓고 흉년이 들면 백성들에게 구휼하거나 어려운 이들에게 대출해주는 등의 제도로 여기에서 생기는 이윤은 불교사원을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쓸 수가 있었다. 佛圖戶란 범죄를 저지른 자나 정복지의 포로 등을 사원에 소속시켜 그 노동력을 이용하는 한편, 교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 노무자라고 할 수 있다.

들어 북위가 涼州를 정벌하고 양주의 백성들을 平城(현재의 大同市)으로 이주시킬 때(439년), 이미 30, 40대의 나이였고 460년에 沙門統이 되어 479년까지 사문통의 지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사망연대는 언급하지 않았다.<sup>4)</sup>

그러나 기존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담요가 사문통으로 활약함에 있어 두 가지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듯하다. 하나는 439년 이전, 담요가 北涼에 거주하면서 돈황 일대의 석굴사원을 보고 그곳에서 종교적 수행을 한 체험이 운강석굴 건설과 불교 경전의 번역보급이라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다른 하나는 456년 태무제가 폐불령을 내려 불교가 거의 궤멸될 위기에 빠졌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승기호·불도호 등 사원경제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아울러 황실과 극도로 밀착하는 북위불교의 특색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사실 《잡보장경》 역경사업 역시 이러한 담요의 두 가지 체험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서·석로지》에는 담요가 모두 14부의 경전을 번역하였다고 했으나 오늘날 현존하는 담요의 역경번역은 《잡보장경》뿐인 것으로 보인다. 《잡보장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불교교리를 믿고 실천하면 좋은 과보를 받는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으나 여기에는 중국의 전통적 윤리관념인 충효와 관계 있는 내용도 많이 있다.<sup>5)</sup>

4) 담요의 생애나 당시 북위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서는 鎌田武雄 저, 장휘옥 역, 《中國佛敎史》 제3권, (서울: 장승출판사, 1996,) 323-334쪽 참조

5) 《잡보장경》 10권 121편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권(1~9): 총9편.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  
제2권(10~26): 총17편. 대부분 충성이나 효도를 강조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이야기도 악업을 버리고 선업을 지어야 좋은 보응이 따른다는 내용이다.  
제3권(27~39): 총13편. 특히 제바달다(提婆達多)가 석가모니를 해치려고 온갖 음모를 꾀하다가 나쁜 응보를 받게 되는 내용이 많다.  
제4권(40~50): 총11편. 보시를 베푼 공덕으로 좋은 응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제5권(51~72): 총22편. 선한 일을 한 남녀가 좋은 과보를 받아 天人·天女로 환생하여 붓다의 설법을 들으러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많다.  
제6권(73~78): 총6편. 붓다와 제자들에게 얹힌 인과응보 이야기이다.

《잡보장경》의 내용은 심오한 철리나 교훈이 아니라 붓다와 제자들 또는 민간의 각종 윤회전생이야기를 모은 것으로 불교교단에 보시하거나 불교윤리를 실천하면 천상에 태어나는 좋은 과보를 받게 된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담요가 조성한 5개의 석굴사원, 즉 운강석굴의 제 16-20번 석굴은 그 거대한 규모도 웅대하지만 그 모델이 앞서 언급한 북위의 역대 다섯 황제들이라고 하니 法果 이래 ‘황제는 當今如來’라고 한 전통이 여전히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담요는 대규모의 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를 북위 왕실의 권위와 결부시키고, 또한 불교경전의 역경과 보급을 통해 충효 등 전통윤리와 결합시켜서 민중들을 교화함으로써 북위왕실의 지지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담요의 노력은 그가 살아 있을 당시에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훗날 북위가 洛陽으로 수도를 옮긴 뒤 (494년)에도 낙양 부근에 龍門石窟이 건설되는 등 중국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불교 융성기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감안해볼 때 담요가 《잡보장경》의 역경사업을 계획하고 이끌어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잡보장경》은 그 내용으로 보나 전달의 용이함으로 보나 사문통인 담요가 북위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불교를 더욱 뿌리 깊게 전파시킬 의도로 북위왕조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 전개한 주요 역경사업의 하나였던 것 같다. 《잡보장경》의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문통 담요의 의도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잡보장경》에 나타나는 예술적 수법들이 후대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하는 점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 제7권(79~94): 총16편. 주로 불교신자들이 불교교단에 보시하고 천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가 많다.  
 제8권(95~101): 총7편. 주로 붓다가 제자들을 교화한 이야기이다.  
 제9권(102~115): 총14편. 인과응보에 얽힌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제10권(116~121): 총6편. 인과응보에 얽힌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 III. 《雜寶藏經》의 內容分析

《잡보장경》 10권에는 모두 121편의 本生故事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일련의 이야기들이 단일 경전을 번역한 것인지, 여러 권의 본생경전을 번역한 것인지는 문헌증거가 부족하여 분명히 알 수 없다. 《잡보장경》의 표제에는 사문통 담요가 서역승려 吉迦夜와 함께 번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잡보장경》의 共譯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魏書·釋老志》에는 담요의 역경작업에 대해 “담요는 또 천축지방의 승려 상나야사(常那邪舍) 등과 새로운 경전 14부를 번역하였으며, 또 사문 道進·僧超·法存 등이 당시 유명하였는데 여러 경전을 설법하였다.”<sup>6)</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담요가 북위불교계를 총지휘하는 사문통의 신분임을 감안하면 이 역경사업은 운강석굴의 건설사업과 마찬가지로 북위의 국가적 역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위서·석로지》에는 14부의 경전을 번역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구체적인 경전의 명칭 등을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 《出三藏記集》에서는 담요의 역경사업에 대해 “《雜寶藏經》 13권 결본, 《付法藏因緣傳》 6권(결본), 《方便心論》 2권(결본), 이상의 3부 21권은 劉宋 明帝시기, 서역의 三藏法師 吉迦夜가 북위 延興 2년에 북위의 僧正인 담요와 함께 번역하였으며, 劉孝標가 붓으로 받아 적었는데, 이 세 가지 경전은 수도에 이르지 않았다.”<sup>7)</sup>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제목에 ‘잡(雜)’이란 글자가 들어가 있는 점, 121편의 고사가 여러 가지

6) 『曇曜又與天竺沙門常那邪舍等，譯出新經十四部，又有沙門道進·僧超·法存等，並有名於時，演唱諸異。』 마지막 구절의 ‘異’자는 《冊府元龜》에 ‘典’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諸典’, 즉 ‘여러 경전’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魏書·釋老志》, 3036-3037 쪽)

7) 『雜寶藏經十三卷(闕), 付法藏因緣經六卷(闕), 方便心論二卷(闕). 右三部, 凡二十一卷, 宋明帝時, 西域三藏吉迦夜於北國, 以僞延興二年, 共僧正釋曇曜譯出, 劉孝標筆受, 此三經並未至京都。』(僧祐 譯, 《出三藏記集》, 北京: 中華書局, 1995. 62쪽)

잡다한 내용으로 구성된 점, 전체내용에 통일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잡보장경》의 원래 텍스트는 한 가지 판본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판본에서 선별적으로 골라 번역했던 것 같다. 사문통 담요가 역경직업의 텍스트로 《잡보장경》을 선정하게 된 것은 불교교단에 보시하면 좋은 응보를 받는다는지, 충효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는 악한 과보가 따른다는지 하는 등의 내용이 민중의 교화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또한 담요 자신이 젊은 시절 涼州 일대에서 수행하였는데, 돈황석굴 등 석굴예술로 유명한 양주 일대의 불교문화가 담요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sup>8)</sup>

담요가 여러 가지 불경 중에서 북위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본생고사라고 여겼다면 과연 그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제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다음 절에서 《잡보장경》의 주제사상과 《잡보장경》의 내용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 1. 《雜寶藏經》의 주제사상

등장인물에 따라 《잡보장경》 본생고사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9)</sup>

- 8) 涼州 일대의 불교미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敦煌石窟이며, 제275굴은 北涼 또는 北魏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尸毘王本生圖를 비롯한 불타의 전기가 벽화로 표현되고 있으며, 공간구조로 보아 이 석굴은 승려들의 수행공간이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275굴 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은 문혀있거나 발굴되지 않고 있지만 담요가 살았던 시대에는 석굴사원의 벽화에 표현된 여러 가지 본생고사들이 민중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담요 역시 본생고사가 민중들에게 가장 쉽게 전파될 수 있는 불교의 교리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久野美樹 저,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 서울: 시공사, 2001, 23-24쪽.)
- 9) 《잡보장경》 121 편을 엄밀히 구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등장인물의 본생고사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았다. 예를 들어 ①의 a는 佛傳의 문헌에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불타의 전기에 가깝다고 보고 ①의 b와 구분하였지만 불전 자체가 현실과 신화적 내용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구분은 어렵다. 그러므로 불타의 전기라고 한 것은 경전에 기록이 있는가를 따진 것이다. ①의 b는 寓言 또는 고사적 성격이 두드러져서 문학창작으로 여

① 불타와 관계된 내용

- a. 불타의 전기에 관한 고사: No. 80, 81, 82, 98, 99, 101, 106, 117
- b. 불타가 등장인물이나 문학적 가공이 두드러진 고사: No.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22, 23,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77, 79, 100

② 불제자와 관계된 내용

- a. 불제자의 전기에 가까운 고사: No. 74, 75, 78, 91, 92, 93, 96, 102, 103, 104, 109, 111.
- b. 불제자와 관련이 있고 문학적 가공이 두드러진 고사: No. 18, 19, 23, 24, 27, 44, 46, 49, 50, 114, 115, 116, 118.

③ 세속인의 고사

- a. 천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 고사: No. 39,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83, 84, 85, 86, 87, 88, 89, 90.
- b. 기타 인과응보에 관한 고사: No. 20, 21, 25, 26, 40, 41, 42, 43, 45, 47, 48, 95, 97, 105, 107, 108, 110, 112, 113, 119, 120, 121.

④ 기타의 본생고사: No. 76.

이상의 분류를 살펴보면, 우선 모든 본생고사가 불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잡보장경》의 고사들은 종교 본래의

겨지는 것들을 모았다. ②의 a, b나 ③의 a, b에도 불타가 등장하는 장면은 많다. 그러나 불타가 이야기의 중점이 아니므로 본생고사의 중심인물이 누구 인가에 따라 구분하였다. ③의 a, b는 다양한 신분계층이 등장하므로 더욱 세분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너무 번잡해지므로 피하고 天人 또는 天女로 태어난다는 본생고사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이야기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보았다. 나머지 76번째 이야기는 본생고사가 아니라 보시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므로 어디에도 분류하기 어렵다.

목적인 포교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잡보장경》 제5권에 수록된 23편의 본생고사는 포교의 목적을 넘어 승단에 보시하라는 노골적인 암시로 가득차 있다. 51 번째 이야기를 예로 들면 天界의 신인 釋提桓因이 법회에서 만난 天女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떤 공덕으로 이처럼 빛나는 모습을 갖게 되었는지 묻자 천녀는 계승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는 전생에 꽃목걸이를 가지고 가섭부처님 탑에 공양했는데 오늘날 천상에 태어났으며 이러한 뛰어난 공덕을 얻어 하늘에 태어나 금빛의 몸을 받았습니다.”<sup>10)</sup> 또 64번째 본생고사를 보면, 舍衛城의 어떤 長者가 屋舍를 지어 불타에게 공양한 인연으로 사후에 천상에 태어난 후 다시 불타의 설법을 듣고 須陀洹果를 받았다. 제자들이 불타에게 그가 천상에 태어나게 된 연유를 묻자 불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옛날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새로 집을 지어 부처님께 보시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선업으로 말미암아 天宮에 태어났으며 드디어 내 곁에서 불법을 듣고 득도했다.”<sup>11)</sup>

특히 《잡보장경》 제5권에 수록된 23편의 이야기는 이처럼 과거 불타에게 꽃을 공양하거나 현재의 불타에게 향을 공양한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심지어 佛法을 얻는 인연이 되기도 한다. 문학적으로 보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비슷한 영험담을 담요가 20여 편이나 선별하여 《잡보장경》에 넣었다는 것은 일반 대중들을 의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담요는 중국 고유의 충효윤리를 선양할 수 있는 텍스트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제1권의 본생고사 9편은 모두 효윤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 가운데 2번째부터 9번째까지 8편은 불타의 본생고사이므로 담요가 의식적으로 중국의 효윤리에 걸맞는 본생고사를 찾았을 것으로

10) 我昔以華鬘，奉迦葉佛塔，今生於天上，獲是勝功德，生在於天中，報得金色身。(《大正新脩大藏經》(日本) 제4책, 《雜寶藏經》 471쪽)

11) 昔在人中，造新屋舍，請佛布施。由是善業，上生天宮，遂於我邊，聞法得道(같은 책, 474쪽)

추측할 수 있다. 제1권의 네 번째 본생고사인 ‘棄老國緣’의 대강의 줄거리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 ① 불타가 舍衛國에 계시실 때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설법을 하시면서 노인을 버리는 나라의 인연’에 대해 말씀하셨다.
- ② 棄老國의 大臣은 차마 나이 많은 부친을 버리지 못해 지하실에 숨겼다.
- ③ 天神이 국왕에게 9가지 難題를 내자 고민에 빠진 국왕은 이 난제를 푸는 이에게 보상을 내리겠다고 공포한다.
- ④ 대신은 늙은 아버지의 지혜를 빌어 난제를 해결하였고, 진실을 알게 된 국왕이 ‘노인을 버리는’ 관습을 폐지한다.
- ⑤ 불타는 지혜로운 노인이 곧 자신의 전생이며, 대신은 제자인 舍利佛이고, 국왕은 阿闍世王이며, 天神은 곧 제자 阿難의 전생이라고 설명하였다.<sup>12)</sup>

천신이 낸 난제라는 것은 굶주린 이 보다 더 고통스럽고, 불에 타는 이 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그 답은 三寶를 믿지 않고 지옥에 빠진 중생이라는 다분히 불교적인 색채를 가진 이야기이다. 이 ‘기노국연’에서 강조되는 것은 불타, 즉 이야기 속 大臣의 지극한 효도이다. 제1권의 다섯 번째 본생고사인 ‘佛於切利天上爲母麻耶說法緣’도 깨달음을 얻은 불타가 사후에 천상에 태어난 생모 마야부인을 위해 도리천에 올라가 설법해주었다는 유명한 일화이다. 어떻게 보면 佛家の 출가수도는 유가의 충효윤리와 정면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선택이며 따라서 유교윤리와 불교윤리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국불교 성장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이 때문에 담요는 불타가 현생에서 성도를 이룬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를 전생의 끝없는 孝行에서 구했던 것 같다. 제1권의 두 번째 고사 ‘王子以肉濟父母緣’은 이러한 효행의 극치를 보여준다. 大臣의 모반으로 형제를 모두 잃은 왕자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 거의 굶어죽기 직전의 위기상황에 처하자

12) 같은 책, 449-450쪽.

왕자가 아내를 죽여 아이를 살리려고 하였더니 아이는 어머니를 죽이지 말고 자신의 살점을 베어먹어 위기를 벗어나라고 하였다. 여러 차례 살점을 떼어주고 아이에게 겨우 살점 하나가 남았을 때, 帝釋天이 이리로 변신하여 그것을 요구하자 아이는 거리낌 없이 그것을 내주었다는 이야기이다. 불타의 본생고사는 그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보시·지계 등의 덕목에서 초인적 인내심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잡보장경》의 경우처럼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효심을 다하는 이야기는 중국 고유의 윤리관념과 결합시키기 위해 담요에 의해 선택된 본생고사라고 생각된다. 본생고사는 원래 불타의 위대한 인격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생의 불타, 그 위대한 인격의 성취는 전생의 수많은 고행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이야기구조를 취한다. 인도의 佛本生故事는 성불의 필요조건인 보시·지계·선정 등의 여러 가지 덕목을 완성하기 위해 초인적인 인내심과 온갖 고행, 선행 등을 실천하는 것이다. 반면, 《잡보장경》에서 볼 수 있는 불본생고사는 성불의 필요조건이 보시·지계 등일 뿐만 아니라 지극한 효를 실천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 금생에서 성불하였다는 것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불교경전에도 효윤리를 강조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볼 때 효윤리는 불교윤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잡보장경》에서 효윤리를 강조하는 본생고사의 비중이 매우 큰 것은 결국 담요가 의도적으로 본생고사를 선별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잡보장경》에서는 제바달다(提婆達多)가 등장하는 본생고사가 약 17편이 될 정도로 많이 나타나는데 제바달다를 다룬 본생고사가 많이 수록되었다는 것 역시 담요의 의도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는 석가모니의 먼 친척 동생으로 귀족신분으로 출가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철저한 수행으로 유명했으나 阿闍世王과 결탁하여 석가모니를 살해하고 석가모니 대신 교단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인물이다. 즉 불교역사에서 제바달다는 오랫동안 불타와 적대적 입장을 취한 반역자로 여겨졌다. 이것은 마치 《聖經》에서 유다가 예수를 밀고한 인물로 묘사된 것과 같아서 이

들의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수난을 당하는 성자의 형상은 더욱더 뚜렷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잡보장경》에는 제비달다가 등장하는 본생고사가 17편이나 되는데, 이러한 적대적 태도의 결과로 제비달다가 나쁜 응보를 받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담요가 《잡보장경》에 이처럼 많은 제비달다 이야기를 선정한 것은 이중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백성들에게 북위왕조에 대해 충성을 다하되 역신이 되면 가혹한 인과응보를 받게 된다고 암시를 주려는 의도이다. 둘째, 위정자들에게 불타를 적대시한 제비달다가 가혹한 응보를 받은 것처럼 불교를 적대시하면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려는 것이다. 담요는 젊은 나이에 涼州 불교계가 북위의 침공으로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였고, 중년에는 태무제의 폐불령으로 교단 전체가 소멸되는 위기를 몸소 체험하였다. 그러므로 제비달다라는 악인의 형상을 통해 반역자, 배신자를 경계하는 이면에는 북위의 위정자들에게 대한 은근한 권계의 뜻도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잡보장경》의 전체 내용은 불타의 전생고사를 소개함으로써 백성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도록 하는 한편, 중국 고유의 윤리도덕인 충효관과 융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것은 폐불령 이후 부활된 북위불교의 최고 지도자였던 담요의 정치적 입장이 적지 않게 반영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본생고사의 구조 및 예술기법

《잡보장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本生故事’로 통칭할 수 있는데 ‘本生故事’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떠한 예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本生’이란 본래 ‘佛陀의 前生故事’를 뜻하는 말이다. 즉, 고대 인도인은 윤회 전생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대한 인물은 금생의 수행만으로 그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거의 생을 통해 많은 선행과 덕행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인격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초기의 불

교경전으로 여겨지는 四部の 《阿舍經》에도 이미 본생을 언급하는 고사들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본생고사의 서사형식은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불타의 일대기와 관련지어 보면 이들 본생고사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실을 기록했다기 보다 불타의 인격을 숭배하는 제자들에게 의해 과장되고 미화되어 표현된 가공의 설화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잡보장경》의 117번째 이야기 <羅侯羅因緣>은 불타의 親子이며 후에 출가해 密行第一의 명성을 얻은 라후라 존자의 출생에 얽힌 이야기이다. 라후라는 ‘장애’라는 뜻으로, 싯달타 왕자가 라후라의 출생으로 출가수행에 장애가 되겠다고 생각하여 그의 이름을 라후라로 지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통설을 근거로 싯달타 태자비 야쇼다라가 라후라를 출산한 것은 싯달타 출가이전의 일로 추정되지만, 본 고사에서는 야쇼다라가 싯달타 출가의 날에 라후라를 임신하였고 그 6년 뒤 成道한 날에 라후라를 출산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 때문에 싯달타 태자의 아버지이며 야쇼다라의 시아버지인 정반왕이 그녀의 결백을 의심하여 그녀를 불구덩이에 넣고 태워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불길은 야쇼다라를 태우지 못했고, 이 기이한 현상을 본 석가 일족은 그녀의 결백을 믿게 되었다. 야쇼다라 태자비가 불구덩이에 몸을 던지고 이를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는 일화는 인도고대의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는 랑카를 지배하는 魔王 라바나가 자신의 아름다운 왕비 시타를 납치해가자 猴族의 장군인 원숭이 하누만의 도움으로 라바나를 처치하고 시타를 구출한다. 재회의 자리에서 라마가 시타의 정조를 의심하자 시타는 라마의 동생에게 불의 제단을 마련하게 하고 뛰어들었으나 火神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라마야나》가 언제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지만 중국의 비교문학가 季羨林은 Anaada·Gurge의 견해를 채택하여 원형고사는 대략 BC 300년, 기록으로 성립된 것은 AD 2세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sup>13)</sup>

《잡보장경》의 첫 번째 이야기인 <十奢王緣>은 바로 《라마야나》의

서두부분을 고도로 간결하게 농축시킨 것이므로 —주인공 羅摩는 바로 《라마야나》의 주인공 라마이다—《잡보장경》의 편찬자는 《라마야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117번째 라후라 고사에 《라마야나》 줄거리의 일부가 혼입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117번째 <라후라인연>은 야쇼다라 태자비가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다는 고사를 차용함으로써 고사의 극적효과를 강화시켰다. 돈황변문 《悉達太子修道因緣》을 보면 불타의 일대기를 통속적인 변문으로 꾸미면서 117번째 고사를 더욱더 생동감 넘치게 표현하고 있다. 즉, 야쇼다라 태자비가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전에 향을 태우거나 향로 앞에서 기도하여 불타의 구원을 받게 되고 불구덩이가 연못으로 변하게 되어 두 母子는 연화좌 위에 앉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라마야나》에서 火神 아그니가 시타 왕비를 구출하는 광경과 흡사하며 불타가 화신 아그니의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관련된 내용의 원문이 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비교해본다.

① 《雜寶藏經·羅候羅因緣》

(중략) 이 때, 야쇼다라는 불구덩이를 보자 비로소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마치 들사슴과도 같이 혼자서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사방을 바라보았으나 야쇼다라가 의지할 곳이 없었다.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아무 죄도 없이 이런 재앙을 받게 되고, 석가 일족을 두루 살펴보아도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 13) 계선림의 《라마야나》라는 논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라마야나》 성립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여 BC 6000년부터 AD 438년에 이르는 거의 수천년이라는 편차가 존재한다. 계선림은 Ananda·Gurge의 견해가 비교적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즉 원재료가 되는 소재들은 BC 400년 경에 이미 존재하였고, BC 300년 경에는 이야기의 원형들이 성립되었으며 AD 2세기 경에는 발미키 仙人에 의해 <라마야나>가 기록되었다는 것이다. AD 2세기라면 서역과 인도에서 대승불교도에 의해 수많은 대승경전들이 창작되고 전파되었던 시기였으므로 인도의 민중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라마왕자의 고사가 불교경전에 혼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季羨林, 《比較文學與民間文學》, 北京大學出版社, 1991. 246-247 쪽)

없으므로 아이를 안고 길게 탄식하면서 보살을 생각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께서는 자비심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니 용과 귀신을 막론하고 모두가 당신을 공경합니다. 지금 우리 모자는 신의 도움이 없어 아무 죄없이 고통을 받고 있거늘 어찌하여 보살께서 염두에 두지 않으시는지요? (중략) 이 아들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며 나의 태속에서 6년이나 있었으니 불길은 응당 꺼질 것이고 우리 모자를 태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바로 불길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불구덩이는 연못으로 변하였다. 그 자신을 살펴보니 연꽃 위에 있었으며 아무 두려움이 없이 얼굴은 평화스럽고 기쁜 표정이었다.<sup>14)</sup>

② 《敦煌講經文因緣輯校·悉達太子修道因緣》

그 대왕(정만왕)은 장사들로 하여금 야쇼다라와 라후라 모자를 궁궐 문에서 내쫓고 불구덩이에 밀어넣도록 하였다. 야쇼다라가 말하기를, “내가 왕궁에 있으면 곧 신부입니다. 만약 불구덩이에 밀어넣는다고 하면 바로 죄인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두 걸음을 한 걸음에 걷도록 하여 급히 가게 하니 야쇼다라가 使者에게 말했다. “잠깐 앉아서 쉬면 안되겠습니까?” 사자가 대답하기를, “만약 부인을 놓아달라고 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잠시 쉬게 해달라고 하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중략) 야쇼다라왕비는 마침내 치마끈에서 태자가 남겨준 향 한 줌을 꺼내 움켜쥐고 태웠다. 그 향 연기는 하나의 뚜껑모양이 되어 영취산으로 날아갔다. 그곳에 있던 석가세존은 향 연기를 보고 야쇼다라 모자가 부왕에 의해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재난을 만났음을 바로 알게 되었다. 드디어 세존께서 영취산에서 멀리 불구덩이쪽을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키시자 불구덩이는 맑은 연못으로 변하고 두 송이 연꽃이 나타나 모자가 각기 연꽃 위에 앉게 되었으니 동자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약하지 않았다. 불길이 야쇼다라 모자를 태울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sup>15)</sup>

14) (中略) 時耶輸陀羅, 見火坑已, 方大驚怖, 譬如野鹿, 獨在園中四向願望, 無可恃怙耶輸陀羅, 便自呵責, 既自無罪受斯禍患, 遍觀諸釋, 無救已者, 抱兒長嘆, 念菩薩言··「汝有慈悲, 憐愍一切, 無龍鬼神, 咸敬於汝, 今我母子, 薄於祐助, 無過受苦, 云何菩薩, 不見有意. (中略) 斯子, 若實不虛, 猶六年在我胎中者, 火當消滅, 終不燒害我母子。」作是語已, 即入火中, 而此火坑, 變為水池, 自見其身, 處蓮花上, 都無恐怖顏色和悅 (앞의 책 497 쪽)

15) (中略) 其大王差壯士令擁耶輸, 羅候母子出於宮門, 推入火坑. 其耶輸云道, 「我既

본생고사는 ‘불타의 전생담’이라고 하지만 고대 인도의 민간우언, 설화 등과 결합되면서 점차 불타의 傳記의 성격은 약화되고 神話적 성격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提婆達多라는 반역자를 설정함으로써 불타의 인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묘사한 것도 이러한 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데, 제바달다의 음모와 행위가 악랄할수록 불타의 위대한 인격은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것이다. 101번째 이야기처럼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 불타를 살해하려고 한다든지, 34번째 이야기처럼 직접 독약을 소지하여 불타를 살해하려고 한다든지 등의 일화는 경전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이러한 갈등의 원인으로 제시되는 전생이야기는 대부분 민간 설화에서 취한 것으로 편찬자의 作爲的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전생에서 共命鳥라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태어난 제바달다가 맛있는 과일만을 먹는 다른 머리를 시기한 나머지 毒果를 먹어 결국 자신도 함께 죽게 된다는(31번째 고사), 不識恩이라는 이름의 상인이 5백 명의 상인과 바다에서 나팔들을 만났다가 큰 거북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지만 도리어 잠이 든 큰 거북을 잡아먹었다(33번째 고사), 사막을 지나가면서 야차에게 속아 물과 식량을 버렸던 상인이 곧 제바달다의 전생이며, 반대로 야차의 속임에도 불구하고 물과 식량을 굳게 지켜 상인들의 목숨을 구한 상인은 곧 불타의 전생이었다고 한다.(38번째 고사) 이 밖에도 많은 사례가 있으나 제바달다의 사악한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 민간고사를 불경속의 전생이야기로 결합시켰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在王宮卽是新婦! 若道擁入火坑, 便是罪人。」兩步作一步急行, 其耶輸告使者, 「欲略歇坐片時, 得否?」其使者答曰·「若放夫人命卽不得, 歇息片時卽一任。」(中略) 耶輸遂於裙帶頭取得太子所留美香一瓣(辦), 只於手中焚燒, 其香煙化爲一蓋, 直詣靈山。其世尊見於香蓋, 便知耶輸母子被父王推入火坑, 遭其此難。世尊遂向靈山遙望火坑以手指其一指, 火坑變作清涼池, 兼有兩朵蓮花, 母子各坐一朵, 不若(弱)化生童子。莫論焚燒耶輸母子, 直言耗(毫)毛一枝不動。(周紹良·張涌泉·黃徵等編, 《敦煌講經文因緣輯校·悉達太子修道因緣》下,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753 页)

한편, 《잡보장경》의 고사 대부분이 本生(前生)—現生의 두 가지 이야기를 대비시키면서 고사의 꾀진성과 생동감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현생고사 속에서 이야기의 기이함 또한 인물 개성의 독특함을 통해 강렬한 대비효과를 주는 작품도 있다. 예를 들어 24번째 이야기 <사라나비구가 악생왕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인연(娑羅那比丘爲惡生王所苦惱緣)>편에서 주인공 사라나 비구는 ‘꿈’을 통해 분노의 어리석음을 체험하는 것이다. 이야기 첫 번째 부분에서 優填王의 아들의 신분으로 출가하여 승려가 된 娑羅那비구는 숲속에서 좌선을 하다가 역시 숲속에 왔다가 惡生王이 잠이 들었기 때문에 숲속을 구경하던 궁녀들에게 설법을 해준다. 잠에서 깬 악생왕이 이 일을 보고 분노하여 사라나 비구를 폐고 내쫓는다. 이야기의 둘째부분에서 사원으로 되돌아온 사라나 비구는 분노와 모욕감을 견디지 못해 당장 還俗하겠다고 스승 迦旃延존자에게 말한다. 존지는 불쌍히 여겨 너는 지금 몸이 아프니 하룻밤 사원에서 자고 내일 떠나라고 권한다. 사원에서 잠이 든 사라나 비구는 꿈속에서 환속하여 본국으로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고 군대를 소집하여 악생왕의 군대를 공격한다. 그러나 크게 패하여 악생왕에게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어 스승 가전연을 만나게 된다. 스승이 악생왕에게 구명을 부탁하러 간 사이에 그 부하들의 칼을 맞은 사라나 비구는 잠에서 깨어나자 스승을 찾아가 꿈 이야기를 한다. 가전연 존지는 분노와 갈등의 마음을 다스릴 것을 설법한다. 엄밀히 따지면 사라나 비구의 ‘꿈’은 本生이 아니라 未來生에 해당될 것이다. 아무튼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현실의 생과 미래의 생을 대비시켜 인간세계의 허망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唐 傳奇 <枕中記>에서 주인공 盧生在 꿈을 꾸게 되는 ‘베개 속 세상’이나 <南柯太守傳>의 주인공 淳于棼이 꿈속에서 南柯郡의 태수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장면들도 인간의 삶은 꿈과 같다는 진리를 설파하기 위해 ‘꿈’이라는 문학적 장치를 썼는데, 예술기교면에서 매우 뛰어나다. 그러나 ‘꿈’을 통해 ‘현실’의 허망함을 들여다본다는 모티프는 사라나비구 이야기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96번째 <불타의 사촌동생 난타가 불타의 꾀박으로 출가하여 득도

한 인연(佛弟難陀爲佛所逼出家得道緣) >편을 보면 불타가 사촌동생 난타를 승려로 만들고 수행을 독려하지만 난타가 미모의 부인 孫陀利를 잊지 못하자神力으로 천상과 지옥을 왕래하면서 난타를 교화시킨다는 이야기이다. 먼저 불타는 난타를 天宮으로 데려가 天女들을 보여주고 열심히 수도하면 내생에는 천상에 태어나 저 천녀들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타이른다. 이에 난타가 열심히 戒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자 불타는 다시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 끓고 있는 빈 가마솥을 보여준다. 이것은 佛法을 제대로 닦지 못하면 천궁의 인연이 끝나는 순간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암시였는데, 이에 혼비백산한 난타는 지상으로 되돌아오자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한 끝에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돈황변문 <難陀出家緣起>는 바로 이 고사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작품이다. <난타출가연기>는 산문이 거의 없고 전편이 六言 내지 七言의 운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타와 난타의 대화가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감각을 준다. 원형고사 자체가 천상과 지옥을 왕래하는 강렬한 대비효과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예술적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특히 불타와 아내 孫陀羅 사이에서 방황하는 난타의 심리묘사부분은 뛰어나다고 하겠다.

《敦煌講經文因緣輯校·悉達太子修道因緣》

(중략) 난타가 반바리매의 밤을 담아 드디어 세존에게 드리고,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불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찰까지 보내주고서 마음대로 되돌아가거라”고 하셨다.

(吟)

난타는 다만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사형께서 채살 분부하시네.  
곧장 불타를 따라갔는데  
또 집안에 있는 아내가 이상하게 여길까 두려웠네.  
두 가지 생각사이에서 견딜 수 없으니  
진퇴양난의 마음으로 곤란했다네.  
빨리 師兄을 보내드리고

바로 집으로 되돌아오는 것만 못하리다.

(斷)

장차 바로 여태를 전승하면서도

오로지 집안에 있는 아내가 늦게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까 두려웠네.

오래 지나지 않아 사원에 도착하게 되자

난타는 불타께 작별을 고하고 돌아오려 했네.<sup>16)</sup>

20번째 <波斯匿王女醜女賴提緣>은 전생에 어떤 辟支佛에게 밥 공양을 드리며 그의 추한 용모에 대해 험담을 했던 賴提라는 여인이 밥 공양을 한 공덕으로 現生에서 바사닉왕의 딸로 태어났지만, 벽지불에게 험담을 한 인연으로 세상에 돌도 없는 추녀로 태어났다는 이야기이다. 波斯匿왕은 수소문 끝에 한 걸인을 찾아내어 賴提와 혼인시키고 그들에게 궁궐 안에서만 살고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한다. 하루아침에 부마가 된 걸인은 귀족들과의 연회에 자주 참석하지만 부인인 공주를 함께 데리고 나오지 못해 친구들에게 별척을 받게 된다. 이 이야기를 들은 퇴제는 몹시 슬퍼하여 불타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렸으며 그 기도의 힘으로 미녀로 변하게 된다. 퇴제고사는 구성이 그다지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추녀가 미녀로 변신한다는 소재가 특이했던 탓인지 唐五代時期까지 꾸준히 민중 사이에서 전파되었던 것 같다. 돈황 莫高窟 제98굴의 南壁과 146굴의 西壁에 이 고사와 연관된 벽화가 있다고 하며, 다섯 종류의 돈황변문 사본(Stain本 No. 2114, 4511, Peliot本 No. 2945, 3048, 3592)도 전해지고 있으니 唐代 이후까지도 상당기간 이 이야기가 민간에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16) 『(中略) 難陀取得半鉢飯, 遂與世尊, 便擬入來. 佛道·『汝與我送到寺中, 任你却來.』(吟) 難陀只欲不去, 師兄處分再三, 便擬送佛到寺, 又怕家中妻怪 兩意之間 叵耐, 進退心口難爲. 不如快送師兄, 送到便來歸捨. (斷) 將身便即送如來, 專怕家中妻怪 [遲]. 不久之間便到寺, 難陀辭佛却歸來』(앞의 책, 993쪽) 여기에서 ‘吟’이나 ‘斷’이라고 적힌 것은 압운의 기호이거나 가락을 읊는 부분에 대한 부호인 듯하다. (加地哲定 著·劉衛星 譯 《中國佛教文學》, 臺灣 佛光出版社 1993. 236쪽)

돈황변문 <醜女緣起>는 그 줄거리에서는 《잡보장경》의 이야기와 거의 동일하지만 대중들을 상대로 하는 통속강창형식이기 때문에 《잡보장경》에서는 상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추녀의 용모를 설명한 부분이나 결혼할 남자를 고르기 위해 고심하는 왕과 왕비의 대화, 퇴제와 남편과의 대화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생동감을 크게 증가시켰다. 추녀 퇴제의 용모에 관해 서술한 부분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기로 한다.

《雜寶藏經·波斯匿王女醜女賴提緣》

(중략) 옛날 비사닉왕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을 퇴제라고 하였다. 18가지 추한 모습이 있어 도무지 사람 같지 않았으므로 그녀를 보면 모두 두려워했다.<sup>18)</sup>

《敦煌變文講經文因緣輯校·醜女賴提緣起》

(중략) 태어난지 3일이 되자 비사닉왕에게 데려가서 비로소 그녀를 보고는 대단히 경악하였다. 세상의 추한 인물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다고 한다. 전생에 어떠한 인연을 지었기에 금생의 모습이 도리어 차이가 있는가? 대왕이 말하기를 “단지 생각만 해도 기이하다. 짐은 이제 왕의 혈통이 거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추한 모습도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고 하나 오늘 아침 같이 지독히 추한 모습은 보지 못했네. 울퉁불퉁하고 오그린 모습은 거북이나 자라 같고, 전신은 멧돼지 껍질 같네. 당신의 그림 그리는 재주가 풍부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그리려 해도 그릴 수 없으리라. 궁녀들은 보고서 모두 놀라면서도 짐승 같은 모습에 누구나 아이를 미워했다. 나라 안에 그 용모를 비교할 수 있는 이 없으니 그녀가 성장하면 장차 누구에게 시집보낼 것인가?” 대왕은 수치스러워서 크게 탄식하였다. 드디어 궁녀들에게 분부를 하되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깊은 궁궐로 보내고 다시는 나오지 말며 짐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하였다.<sup>19)</sup>

17) 高國藩, 《敦煌俗文化學》, 上海: 三聯書局, 1999, 482-483 쪽

18) (中略)昔波斯匿王有女, 名曰賴提, 有十八醜, 都不似人, 見皆恐怖(앞의 책, 457-458쪽)

19) (中略)纔生三日, 進與大王, 纔見之, 非常驚訝. 世間醜陋, 生於貧下. 前生修甚因

115번째 <優陀羨王緣>의 고사 역시 돈황변문에 영향을 주어 <歡喜國王緣>이라는 변문의 원형고사가 되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優陀羨王이 有相王妃를 위해 거문고를 타다가 춤추는 왕비의 모습에서 死相이 나타남을 보고 탄식한다. 이에 왕비가 연유를 묻자 우타선왕은 그대에게는 일주일의 생명 밖에 없다고 대답한다. 유상왕비는 일찍이 石室 비구니로부터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면 사후에 천상에 태어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왕과 작별하여 비구니가 되었다가 사후에 천상에 태어나고, 왕에게 다시 나타나 佛道를 닦을 것을 권유하여 왕 역시 阿羅漢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돈황변문 <歡喜國王緣>은 우타선왕과 유상왕비의 일화만을 추려내어 더욱 정밀하게 다듬은 이야기이다. 예를 들어 115번째 고사에는 석실 비구니의 이름만 잠시 언급될 뿐이지만 돈황변문 <환희국왕연>에서는 죽음을 앞둔 왕비가 고향에 가서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고향에 내려갔다가 석실 비구니와 대화를 나누고 천상에 태어날 길을 찾아 그녀를 따라 八戒를 하루 지킨다는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히 부연되어 있다. 이처럼 《잡보장경》의 本生故事는 긴밀한 이야기구조와 통속적 흥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후대 서사문학의 원형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잡보장경》의 이야기는 운문과 산문의 결합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50~57번째 이야기와 65~67번째 이야기처럼 선행을 하면 그 응보로 천상에 태어난다는 틀에 박힌 서사방식이다. 이것은 대개 당신은 어떤 선행으로 天女가 되었는가 하고 상대방이 물으면 천녀 역시 이러한 선행으로 인해 천상에 태어난 것이라는 문답식의 계승이 이용되기

緣、今世形容轉差，大王道·「只目思量也大奇，朕今王種起如斯？醜陋世間人總有，未見今朝惡相儀。穹崇巖窟如龜鱉，渾身又似野豬皮。饒你丹青心裏巧，彩色千般畫不成。官人見則皆驚怕，獸頭渾是可憎兒。國內計應無比並，長大將身媧阿誰？」大王羞恥，嘆訝非常。遂處分官人，不得唱說，便遣送至深宮，更莫將來，休交朕見。(앞의 책, 950-951쪽)

때문이다. 《雜寶藏經》의 51번째 이야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여러 하늘의 무리들이 이 天女를 보고 드물다는 마음을 내었다. 釋提桓因 이 곧바로 계송으로 천녀에게 물었다.

(偈) “그대는 어떤 복업을 지었기에 몸은 진금을 녹인 듯하고, 자태는 마치 연꽃 같도다. 얼굴에는 커다란 위엄이 있고, 몸에서는 오묘한 광명을 내면서 얼굴은 마치 활짝 핀 꽃 같으면서도, 황금빛이 찬란하게 비치니 어떠한 행업을 얻은 것인지 나에게 말해주길 원하노라.” 이때 천녀는 계송으로 대답하였다.

(偈) “나는 전생에 꽃목걸이를 가지고 가섭부처님 탑에 공양했는데 금생에 천상에 태어났으며 이러한 뛰어난 공덕을 얻어 하늘에 태어나고 금빛 몸으로 보답 받았네.”<sup>20)</sup>

그러나 이들 계송은 산문의 일부를 차지할 뿐이지만 29번째 이야기는 산문보다 운문 부분의 길이가 더욱 긴, 초기불교경전의 서술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산문부분에서 제바달다가 불타를 욕함에도 평정하고 침착한 모습을 보이는 불타를 보고 여러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불타는 제바달다와 얽힌 본생고사를 들려준다. 즉 과거생에 迦尸國에 大達이라는 龍王과 憂婆大達이라는 龍王이 있었는데 가시국왕이 자주 짐승을 잡아서 두 용에게 바치므로 살생을 싫어하는 형 大達은 동생 憂婆大達을 설득하여 屯度脾 龍王이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다. 제바달다의 前身인 屯度脾 龍王이 두 용왕의 위풍을 질투하여 끊임없이 괴롭히니 憂婆大達이 屯度脾 용왕을 죽이려 했으나 형이 그를 말리고 가시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이다. 이 본생고사의 산문부분은 몇 백자 되지 않으나 이 내용을 그대로 七言의 詩偈로 옮긴 부분은 320여 행이나 되는 장편 서사시이다. 사실 《잡보장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초기 불교경전에 가까운 부분은 29

20) (中略)諸天之衆，見是天女，生希有心。釋提桓因，即便說偈，問天女言。(偈)汝作何福業，身如融真金，光色如蓮花，面有大威德，身出妙光明，面若開敷華，金色晃然照，以何業行得，願爲我說之。爾時天女，說偈答言。(偈)我昔以華鬘，奉迦葉佛塔，今生於天上，獲是勝功德，生在於天中，報得金色身。(앞의 책, 471쪽)

번째 고사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기불교경전은 암기의 편의를 위해 주로 모든 내용이 계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와 연관되는 고사나 주석 등은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문의 시계가 《잡보장경》에서는 이렇게 단 한편 뿐이므로 본 경전의 원전은 초기 불교경전보다 조금 후대의 판본에서 선별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 IV. 結 論

중국문학사를 개관해보면 중국 고대문학의 발전과정은 끊임없는 융합의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공자시대의 詩歌와 散文은 이전 시대의 예술형식이 유가사상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종합된 결과이며, 漢代의 산문을 대표하는 《史記》의 출현은 이전시대의 歷史와 哲學散文 등이 종합된 결과이다. 魏晉南北朝時代의 志怪小說이나 唐代 傳奇에 대해 말하자면 道教와 佛教라는 새로운 사상이 문학가들에게 준 충격과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雜寶藏經》은 北魏佛教의 중흥을 꿈꾸었던 曇曜에 의해 추진되었던 국가적 역경사업이었다. 《잡보장경》의 내용과 문장에서 충효관념을 언급하는 대목을 찾기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北魏 민중들을 대상으로 하여 종교 본연의 목적과 왕조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중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잡보장경》의 本生故事는 까다로운 哲理와 사상을 버리고 쉽고 통속적인 이야기 형식의 문장을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잡보장경》에 실린 본생고사들은 후대의 중국서사문학, 특히 고소설과 돈황변문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돈황벽화 등의 불교미술에서 적지 않은 本生 壁畫가 발견되는 것처럼 백성들의 일상 신앙과 의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듯하다. 본생고사 중 몇몇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 예를 들어 20, 96, 115 번째 이야기는 돈황변문 중의 몇몇 작품, 즉 <醜女緣起>, <難陀出家緣起>, <歡喜國王緣> 등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이는 《잡보장경》에 실려 있는 원형고사들이 뛰어난 예술성과 통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雜寶藏經》，大正新脩大藏經(日本) 雜 권  
僧祐 譯，《出三藏記集》，北京 中華書局 1995.  
《魏書》114권, 北京: 中華書局, 1984.  
金永燮, <《魏書·釋老志》譯註>, 《中國史研究》제8 집 2000. 2.  
周紹良·張涌泉·黃徵 等 編, 《敦煌講經文因緣輯校》下,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9.  
劉精誠, 《兩晉南北朝》,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4.  
高國藩, 《敦煌俗文化學》, 上海: 三聯書局, 1999.  
季羨林, 《比較文學與民間文學》,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1.  
鎌田武雄, 장휘옥 역, 《中國佛教史》 제3권, 서울: 장승출판사, 1996.  
九野美樹 지, 최성은 역, 《중국의 불교미술》, 서울: 시공사, 2001.  
加地否定 著·劉衛星 譯, 《中國佛教文學》, 臺灣 佛光出版社, 1993.  
中村元·奈良康明·佐藤良純 등, 金知見 역, 《佛陀의 世界》, 서울: 김영사, 1984.  
櫻部建 등 편, 이미령 역, 《붓다의 과거세 이야기》, 서울: 민족사, 2003.

### <中文提要>

《雜寶藏經》是北魏時期翻譯的一部漢譯佛經。《雜寶藏經》中的本生故事一共有121篇，每個故事都有豐富的印度民間文學藝術特色。沙門統曇曜是主持編纂《雜寶藏經》的北魏高僧。他可以說是一位熱情的佛教領導者，也可以說是能幹的譯經大師。公元446年，北魏太武帝發布了廢佛之勒令，其後幾年在華北地區幾乎完全消失了佛教徒傳教活動。公元452年，北魏第四代皇帝文

成帝發表了復興佛教的命令，然後北魏佛教教團再獲得繁榮的好機。公元460年，文成帝任命了曇曜為沙門統，就是北魏最高的僧官，從而曇曜繼續進行了佛教振興的各種政策。《雜寶藏經》中的本生故事可以分為如下幾種：其一，有關佛陀、佛弟子的本生故事有不少強調孝行觀念的作品。比如說，在〈棄老國緣〉本生故事，一位大臣(主人翁就是舍利佛的前生身)通過他父親(即佛陀的前生身)的智慧，可以解決了天神向國王提出的難題。其結果棄老國王廢除了「棄老」的國俗。通過這樣的內容，我們明顯看儒家忠孝觀念因素。其二，為了北魏佛教教團的發展，某些本生故事非常強調人民向佛教教團布施的功德。例如說，《雜寶藏經》第四、五卷中的許多本生故事都是這樣的內容。死後，在前生向佛教教團布施的許多男女可以出生天上世界的天人、天女。相反，提婆達多一樣的大惡人未來受無限的惡報。也許當時的人民受了這種報應觀念的影響。較精彩的本生故事〈波斯匿王醜女賴提緣〉、〈優陀善王緣〉、〈佛弟難陀為佛所逼出家得道緣〉、〈羅睺羅因緣〉等都影響到後代民間敘事文學。這幾篇作品是敦煌變文〈醜女緣起〉、〈歡喜國緣〉、〈難陀出家緣起〉、〈悉達太子修道因緣〉等作品的故事原型。總而言之，《雜寶藏經》的本生故事都有較好的藝術性、曲折的故事性，所以我們可以肯定這樣作品的文學藝術價值。

주제어: 北魏佛教, 沙門統, 大衆化, 本生故事, 因果應報, 忠孝觀念